

한국 독서운동의 현단계와 전망: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The Present Stage and Prospects of the Reading Campaign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One Book, One City' Projects

이 용 재(Yong-Jae Lee)**

초 록

이 연구는 국내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의 지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최근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조명하였다.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최근 수년 간 북미 전역에 확산되었으며, 많은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독서운동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여러 도시가 이러한 독서운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의미와 의의를 살펴보고, 국내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주요 도시별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는 국내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특징을 규명하고 한국 사회에 맞는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One Book, One City' projects which are being spread in Korea, with the perspective to broaden the horizon of 'Library Movement' and 'Reading Campaign' of Korea. 'One Book, One City' projects have been spread in North America during recent years, and they are reported as successful reading campaign in many communities. Many Korean cities are promoting 'One Book, One City' project diversely.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projects, and analyze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projects which are being propelled in some cities of Korea. Finally, this study looked into the special features of Korean 'One Book, One City' projects and provided some suggestions for the ways or strategies to develop the 'One Book, One City' projects, which are appropriate for the Korean society.

키워드: 독서운동, 도서관운동, '한 책, 한 도시', 공공도서관, 지역사회 운동
reading campaign, library movement, 'one book, one city', public libraries,
community movement

*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lyj5384@pusan.ac.kr)

논문접수일자 : 2006년 5월 9일 논문심사일자 : 2006년 5월 28일 게재확정일자 : 2006년 6월 9일

1. 서론

연구자는 도서관경영 분야를 담당하여 연구하고 강의를 하고 있다. 연구자는 국내 도서관의 경영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서관운동(Library Movement)'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국내 도서관은 다양하고 풍부한 장서를 갖추고 지식과 정보가 원활히 순환되는 근·현대적 의미를 가진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주로 자신의 책으로 암기공부에 열중하는 이용자가 찾아오는 '독서실'의 단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른바 지식기반사회라고 하는 21세기에도 우리나라 도서관을 근·현대적 의미의 도서관으로 바꾸고 가꾸어 나가야 할 필요가 여전히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우리나라 도서관이 도서관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차원의 '민중의 대학(people's college)'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의 도서관이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펼치는 공공도서관을 의미한다. 근대 시민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은 지역 대중의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열린 광장(forum)'이자 '정보와 지식의 저수지'로 기능한다. 근·현대 공공도서관의 발달사에 근거하여 본다면,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주인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남녀노소가 정보와 지식, 나아가 문화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사회에서 남녀노소가 가급적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이 있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책 읽는 행복을 느끼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지식을 연마하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야 한다.

한편, 연구자는 최근에 '독서운동(Reading Campaign)'에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서관운동은 자칫 사서직의 권익옹호 차원의 '강성(強性)' 운동으로 비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시민운동 차원의 독서운동과 연대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운동의 기본을 확인하고 그 지평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의 연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독서운동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도서관운동의 역사와 함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지만, 여기서는 최근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운동을 주된 사례로 하여 그 의미와 현황을 살펴본다. 나아가 이러한 독서운동이 국내의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자는 최근 수년간 이러한 '한 책, 한 도시' 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이 독서운동에 대해 다각도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적합한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모델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의 지평 확대

2.1 도서관운동의 지평

현대 한국 사회의 독서운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도서관운동의 주요 사례로는 엽대섭의 마을문고 운동을 비롯하여 여러 사례가 있다. 엽대섭은 우리나라 마을문고의 아버지이자 막사이사이상 수상자로 기억된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천신만고의 고생 끝에 성공하여 귀국한 사업가 엽대섭은 우리나라 농어민을 대상으로 독서운동을 펼쳤다.

그가 생각한 '마을문고' 개념은 첫째, 책을 넣어 관리할 수 있는 책장, 둘째, 열네 살 이상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독서회, 셋째,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선정도서, 이상 세 가지를 기본 요소로 하였다. 이러한 마을문고는 우리나라의 낙후된 농어촌의 문화향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서 30여권과 소형의 목제책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엽대섭의 아이디어로 1961년 2월에 '농어촌마을문고보급회'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이회는 1962년에 '마을문고진흥회', 1968년에 '마을문고본부'로 개명된다. 1961년 첫 해에 26개였던 마을문고는 1968년에 1만개를 돌파하였으며, 1971년에 2만개를 넘어서고,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본격적인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1979년에 이르러서는 전국 동리의 약 95%에 해당하는 36,303개의 마을문고가 설치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1982년 마을문고 본부는 '사단법인 새마을문고중앙회'라는 단체명으로 바뀌며, 새마을운동의 하부 체제로 전환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¹⁾

한국 사회에서 60, 70년대의 마을문고 운동 이후 다양한 차원의 도서관운동이 전개되었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 초중반에는 입관료 폐지

운동, 개가제운동, 관외대출운동, 이동도서관운동 등과 같이 도서관운영의 근대화에 주력하는 운동이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도서관법 개정, 공공도서관 정책 소관부처의 이관 등 제도개선의 성과가 가지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더불어 대한도서관연구회, 전국사서협회라는 운동조직이 결성되어 이를 중심으로 도서관운동이 전개됨으로써, 선도적 지도자 중심의 도서관운동에서 도서관 현장 사서들에 의한 조직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²⁾

또한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도 여러 지역에서 전개되어 왔다. 최근까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마산의 책사랑, 창원의 마을도서관, 서울 난곡의 주민도서관, 에스콰이어문화재단의 인포어린이도서관, 대구의 새빛도서관, 용인의 느티나무도서관,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의 '기적의 도서관', 순천과 부친의 '작은 도서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운동은 여러 가지 역사적 굴곡과 운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서관운동의 역사를 통틀어 그 성과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국내 독서운동의 전개 방향을 가늠하는 데 더욱 보탬이 될 것이다.

2.2 독서운동의 지평

독서운동에 대해서는 새로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지만, 연구자는 "독서운동이란 독서를 권장하고 사람들이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사회

1) 이연옥, 2002,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pp.73-93.

2) 위의 책, 235.

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독서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스타트(Book Start)’ 운동과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운동을 들 수 있다.

‘북스타트 운동’은 책과 아기를 함께 묶어 주고자 하는 운동이다. 그런데 북스타트는 책을 나누는 즐거움이지 아기들에게 독서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³⁾ 영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일본을 거쳐 국내에서도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다.⁴⁾

‘한 책, 한 도시 운동(이하 ‘한 책’ 운동)’이란 한 지역사회에서 선정된 한 권의 책을 온 시민이 함께 읽고 토론하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즐기는 독서문화운동이다. 미국 시애틀에서 1998년에 처음 시작된 ‘한 책’ 운동은 금세기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수행된 매우 두드러진 독서운동이면서 ‘문자문명(文字文明)’의 재정립을 도모하고 토론문화를 통한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하고자 하는 캠페인이다. 이러한 ‘한 책’ 운동은 미국 전역에 확산되었으며, 최근 까지 캐나다, 영국 등지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서산, 순천, 부산, 서울, 원주, 익산 등 여러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점차 다른 도시에도 이 운동이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한 책’ 운동은 이상의 국내외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의 연상선상에서 그 지평을 확산하고 정착 가능성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역사적 맥락과 문화지형을 파악하지 않고는 이러한 서구적 의미의 독서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뿌리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선각자, 도서관운동가, 독서운동가의 헌신과 창조적 활동을 바탕으로 삼고, 그 위에서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전개할 때, 이러한 독서운동의 지속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의미와 의의

‘한 책’ 운동은 한 지역사회에서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토론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치는 독서운동이다. 이 운동의 목표는 한 지역사회에서 선정된 한 책을 온 주민이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공통의 문화적 체험을 갖게 하며, 독서와 토론의 문화를 복돋우고자 하는 것이다. ‘한 책’ 독서운동의 가장 큰 의의는 그 규모가 어떠하든, 하나의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독서운동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⁵⁾

이 독서운동이 처음 시도된 것은 1998년도 미국 시애틀에서였다. 시애틀 공공도서관의 Washington Center for the Book이 주관한 ‘만약 온 시애틀이 같은 책을 읽는다면(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이라는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독서운동을 고안한 사람은 시애틀 공공도서관의 사서 낸시 펠

3) Booktrust. 1992. *Welcome to Bookstart*, Booktrust, 1.
4) 북스타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재(2005). 부산북스타트운동의 전개양상과 발전 방안. 『한국민족문화』, 25: 429-460.을 참조하십시오.
5) 윤정옥. 2005.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동향과 의의: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One Book, One Busan 운동 전개 심포지움』, 14.

(Nancy Pearl)이다. 그녀는 기존의 도서관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문화프로그램으로, 매년 한 사람의 주요한 현대작가를 초청하여 그의 작품을 읽고 토론하며 그에 관련된 행사를 펼침으로써 독서인구를 확산시키고 디지털 시대에 책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독서토론을 통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 후 2001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시작된 'One Book, One Chicago'로 인하여, 이러한 독서운동이 '한 책, 한 도시'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도서센터에서 유지하고 있는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등록부를 보면, 2006년 5월 현재 미국 51개주 전역의 300여개의 지역에서 이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으며,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나라에서도 이러한 독서운동이 진행되고 있다.⁶⁾

'한 책' 운동을 통하여, 한 지역사회에서 선정된 한 권의 책을 온 시민이 함께 읽고 토론한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공공도서관이 전자정보와 영상매체에 탐닉하는 대중에게 "다시 책으로"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노력은 이전까지 지역사회에 파고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공공도서관의 전통적 사명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⁷⁾

이 독서운동이 처음 시작된 이후 8년째인 올해까지 이 운동이 북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나아가 영국, 호주 등에도 이러한 독서운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까지는 '한 책' 운동이 성공리에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

겠다. 즉, 이 독서운동은 도서관 내부에서 출발하여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사회의 행정기관, 학교, 언론, 기업체,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때문에 종래의 교양주의 차원이거나 계몽적 성격의 일방통행식 독서권장운동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문화운동의 성격을 지닌 네트워크형 독서운동으로 볼 수 있다.

이 운동은 지역사회마다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다. 기본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주축으로 하는 운동 주체가 매년 한 사람의 주요한 현대작가를 초청하여 그의 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주관한다. 작품의 선정기준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할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좋은 책(良書)'라는 기준보다는 '토론하기 좋은 책'이라는 기준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책 선정을 위해 시민 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고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집중 토론하여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도 한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선정된 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행사(성인 및 청소년 독서토론, 작가의 방문, 연극, 영화, 낭독회, 음악 공연, 사진전 등)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운동주체는 '토론도움자료(discussion toolbox)'를 만들어 제공한다. 주로 사서들이 제작하는 이 안내서에는 작가 소개, 작품의 배경자료, 토론을 위한 질문과 활동 지침, 서평, 추천 자료, 프로그램 평가양식 등이 실려 있으며, 인쇄본으로도

6)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html> (Cited 2006. 5. 16).

7) 윤정옥, 2004.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 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46.

서관과 서점에 제공되고 동시에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기도 한다.

‘한 책’ 운동은 그 주도 세력이 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시 혹은 시민의 문화적 역량, 결집도 그리고 독서환경의 성숙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든 지역사회가 획일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⁸⁾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펼쳐지는 ‘한 책’ 운동은 기본적으로 책을 통하여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토론이 펼쳐질 수 있고 디지털시대에서 또 하나의 공동체문화가 꽃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도서관협회와 충남 서산시가 2003년 10월 황선미의 작품인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도록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던 ‘서산 시민 모두가 책 한 권을 함께 읽는다면!’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순천시, 부산시, 청주시가 각각 독자적으로 ‘한 책’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영불 이중 언어권인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운동을 공식적으로 추진한 사례이다.⁹⁾ 2006년 5월 현재 서산, 순천, 부산, 청주뿐만 아니라 서울, 원주, 익산, 강릉 등에서 이를 모태로 한 다양한 형태의 독서운동이 진행되거나 추진 중이다. 해외의 사례는 선행연구인 윤정옥의 글¹⁰⁾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최근 수년 간 국내에서 수행된 ‘한 책’ 운동에 대해 살펴본다.

4. 국내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주요 도시별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에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이 운동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충남 서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또한 같은 해 순천에서도 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순천시 평생학습도시 연계사업의 주요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이어 2004년에는 부산에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씬지도서관 등의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서울, 원주, 익산 등에서도 시범적인 사업을 진행하였다. 2005년에는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모두 6개 도시에서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했으며, 2006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 중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운동에 대한 관심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래의 표 1은 국내에서 ‘한 책’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주요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4.1 서산 - 서산시민 모두가 한 권의 책을 함께 읽는다면

서산의 경우, 국내 ‘한 책’ 운동의 첫 주자이다. 한국도서관협회가 행정자치부의 2003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서산시립도서관이 사업주체가 되어 국내에

8) 윤정옥. 2004. 앞의 글, 46.

9) 위의 글, 46.

10) 윤정옥. 2004.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46-66; 윤정옥. 2005.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특성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7-43.

(표 1) 국내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사례 도시별 현황¹¹⁾

(2006년 5월 현재)

지역	주최	프로그램명 / 웹 사이트	시작연도
서산	한국도서관협회 서산시립도서관	서산시민 모두가 한 권의 책을 함께 읽는다면 < http://myhome.naver.com/munjea2004 >	2003
순천	순천시청	책 한 권, 하나의 순천 < http://www.sclibrary.or.kr >	2004
부산	부산시 교육청	한 책, 한 부산 =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부산 < http://reading.pen.go.kr >	2004
서울	서울문화재단	책 읽는 서울 - 기초 예술, 책부터 시작이다 < http://www.sfac.or.kr/culture/culture02.asp >	2004
원주	원주투데이 생명원주21	원주시민 모두가 한 권의 책으로 뭉치자 < http://www.bookone.or.kr >	2004
익산	익산시립도서관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 http://lib.iksan.jeonbuk.kr >	2005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의 '한 책, 한 도시' 운동 공식도메인 < http://www.onebook.or.kr >	2005

서 '한 책' 운동을 실험하기 위해 나섰다. 북미에서 공공도서관과 사서가 이 운동을 주도하는 것을 볼 때, 서산시립도서관이 나선 것은 바람직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첫 해의 사업을 보면, 9월부터 본격 추진되어 12월까지 다소 급하게 추진되었다. 도서선정을 위해 9명의 대상도서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선정하였다. 10월 27일 서산시장의 대상도서 발표를 기점으로 저자강연회, 토론회, 그림전시회, 연극 비디오 상영, 백일장 등의 행사가 펼쳐졌고, 12월에 평가워크숍을 개최하였다.¹²⁾

서산이 첫 번째 원북(One Book)으로 『마당을 나온 암탉』을 선정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남녀노소의 독서 및 토론 욕구를 촉발하는 데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지역공동체의 화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초등 5~6학년부턴 성인에 이르기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이며, 다양한 형태(책, 영화, 연극, 비디오 등)로 접할 수 있는 책이며, 각종 단체의 문화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토론도움자료집(워크북)도 중·고등학생·일반인용과 초등학생용으로 구분되어 제작되어, 시민들의 토론활동에 제공되었다. 도서선정위원회에는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자문을 맡아보는 외부 코디네이터, 주부독서회 회장, 교사, 독서단체 회원, 사서 등이 참여하였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성공여부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업기간 동안 도서대출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시내서점 4곳에서 2천여 권이 판매된 것을 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

11) 황은주. 2006. 『한국의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운동 현황과 전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88.
12) 박미희. 2004.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서산시 시범사업 사례,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운동 경과와 향후 발전과제 모색』(2004년 6월 4일, COEX 컨퍼런스센터): 36-39.

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³⁾ 2004년부터 서산시립도서관은 자체적으로 ‘한 책’ 운동을 추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4.2 순천 - 책 한 권, 하나의 순천

순천의 경우, ‘한 책, 한 도시’ 운동뿐만 아니라, ‘북스타트’, ‘기적의 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국내외 독서운동과 도서관운동의 주요한 흐름이 이 도시에서 실험되고 추진되고 있다. 2003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순천시청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책읽는 순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다양한 독서운동과 도서관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 ‘기적의 도서관’ 1호관을 유치하면서, 도서관개관과 더불어 아기와 책을 이어주는 캠페인 ‘북스타트’와 지역공동체의 책 읽기 운동인 ‘책 한 권, 하나의 순천’을 적극 추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순천의 ‘한 책’ 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순천시청의 강력한 추진력과 원활한 재정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어 타 도시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순천은 도서선정과정을 중요시하여 1단계로 시민들의 추천을 받고, 2단계로 학생·교사·직능단체 등으로 구성된 200명의 책선정시민위원회의 후보도서 10권 선정작업을 거쳐, 3단계의 책선정전문위원회의 최종 ‘한 책’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¹⁴⁾ 이어 이 사업의 기획주체인 순천시청 평생학습지원과는 도서관의 활동

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선정도서를 각급 학교와 단체에 배포하고, 언론,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홍보탑·현수막·포스터·전단 등을 통한 활발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나아가 문화프로그램으로 작가강연회, 그룹 토론회, 잠깐 퀴즈, 독서백일장 대회, 워크숍, 그림전시회, 시나리오 공모, 연극 상연, 책 축제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순천의 ‘한 책’ 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독서문화운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각 지역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도서관과 먼 거리에 위치한 읍·면·동 단위 지역과 인구가 밀집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에 12개, 2005년에 7개의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5개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작은 도서관’ 설치 사업은 주민의 독서의지가 높고 자체 운영인력과 운영비의 확보가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에서 시설, 장서,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¹⁵⁾ 이 사업은 앞으로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상호대차가 원활히 실시되어 도서관문화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작은 도서관들이 시립도서관의 분관 형태가 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사업의 기획과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6년에 작은 도서관 5개관이 증설되면, 기존의 시립도서관 3개관, 작은 도서관 19개관과 함께 도서관이 모두 27개관이 된다. 이는 순천시 인구

13) 위의 글, 52; 황은주, 앞의 글, 46.

14) http://www.sclibrary.or.kr/menu_8/81_onebk_sc.php (Cited 2006. 5. 18)

15) http://www.sclibrary.or.kr/menu_8/82_small_li.php (Cited 2006. 5. 18)

1만명에 1개관 꼴로 도서관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작은 도서관 운영자로 사서자격증 소지자, 도서관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¹⁶⁾고 말한다.¹⁷⁾

4.3 부산 - 한 책, 한 부산 (한 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부산)

연구자가 사는 부산에는 '한 책, 한 부산 (One Book, One Busan)' 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한 책, 한 부산' 운동은 '부산북스타트운동 (Busan Book Start) 운동'¹⁸⁾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초창기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이 운동을 시작하고 후원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부산의 공공도서관이 이 운동을 주도하는 구도로 나아가고 있다.

2004년도의 경우, 부산의 '한 책'으로 『팽이부리말 아이들』이 선정되었으며,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청은 이 도서를 시민들에게 나눔책으로 배부하고(핸드북 포함 20만부) 북크로싱(book crossing)운동, 도서교환전 등을 통하여 책을 돌려읽기를 권하는 한편, 작가와의 시민토론회, 학부모·학생 대상 독서캠프,

시민 독서감상문 발표대회 등을 추진하였다.

2005년도에 들어 '한 책, 한 부산' 운동은 더욱 발전하여, 민·관 협력모델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즉, 학계와 민간의 전문가, 지역 언론, 시민단체, 교사 및 학부모회, 한국도서관협회, 책읽는사회국민운동 등의 관련 단체와 전문가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자문을 하고 있다. '한 책' 선정 과정은 각 공공도서관이 후보도서 10권씩을 추천하고 선정위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한 독서단체의 권장도서목록을 참조하여 1차적으로 10권을 선정하고, 약 한달 간 진행된 각종 기관 홈페이지 상의 사이버투표를 통하여 시민들이 최종적으로 한 권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한 책'으로 『사람풍경』이 선정되었다. 이어 원북원부산운동 전개 심포지움 개최, 공공도서관, 찜지도서관,¹⁹⁾ 대학 및 학교에서의 독서회, 도서배포 및 작가사인회 실시, 범국민독서운동본부의 독서릴레이 사이트에 '원북원부산' 코너 개설, 다음(Daum)에 원북원부산 카페 개설, 원북원부산 로고 '책갈매기' 제작, 작가와의 만남, 독후감 공모, '토론도움자료'의 제작과 보급, 사진전 및 순회전시회, 낭독회, 부대 공연 등

16) 순천시청 평생학습지원과장 Y와의 전화인터뷰, 2006. 5. 18.

17) 연구자는 2005년 9월 27일에 순천에서 열린 「책 읽는 순천」 심포지움에 초청되어 발표를 하였으며, 당시 순천시의 공무원과 시민의 추진력과 참여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순천의 사례는 도시 전역에서 시청과 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한 책' 사업을 펼치고 있고, 특히 '북스타트' 운동과 작은 도서관 설치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한국에서 모범사례로 될 것으로 보여 향후의 귀추가 주목된다.

18) 부산북스타트운동은 부산시민의 책 읽는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평생교육 차원의 독서진작 캠페인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책읽는 학교' 홈페이지(<http://reading.pen.go.kr/>): 이수진(2004), 『한국 북스타트 운동에 관한 연구: '부산 북스타트 운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 '찜지도서관(독서정거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범국민독서운동본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작은 규모의 독서공간이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영 의지가 강한 곳에 설치하고 있다. 찜지도서관은 병원, 시청, 동사무소, 복지관, 시민단체 건물 등에서 설치되고, 도서 약 1천권과 컴퓨터 몇 대를 갖추고 있다. 2005년도까지 13호점이 개설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9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 진행되었다.²⁰⁾

2006년에 부산의 '한 책' 운동은 본격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수 년 간 다소 미온적이었던 공공도서관이 이 운동의 주체가 되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즉,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이 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에는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및 각종 기관에서 1차 추천된 100권 중에서 운영위원장, 사서, 교사, 독서회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후보도서 10권을 선정하였다. 이어 이러한 10권을 대상으로 시민투표 작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시민투표는 작년까지 사이버투표로만 시행되었으나, 올해는 가두홍보와 각종 기관에서의 홍보를 동시에 시행하여 현실공간 및 길거리 투표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러한 홍보결과 예전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 5월 1일 원북선포식과 작가초청강연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진행되었다. 공공도서관의 계획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시민독서릴레이, 도서관별 독서회 결성 및 운영, 독서토론도움자료 제작 배부, '한 책' 세미나 개최, 작가와의 만남 및 대토론회 개최,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낭송회, 독후감 공모 및 시상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4.4 서울 - 책읽는 서울: 기초예술, 책부터 시작이다.

서울에서는 '문화가 꿈이 되는, 문화가꿈'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문화재단이 나서서 "책읽는 서울: 기초 예술, 책부터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범시민책읽기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협의회,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책읽는 서울」 사업은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 및 사고력 증강, 문화예술발전의 이론적 토대 제공, 언론의 지속적 행사를 통해 인쇄매체의 중요성 인식 제고, 공공도서관 및 단체/시민 간의 공동네트워크 형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²¹⁾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독서낭독투어,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독서축제 및 캠페인, 도서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한 책' 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이다. 서울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규모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책' 운동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운동주체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구 단위로 지역범위를 한정하여 개별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 책' 읽기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관 한 책(One Book One Library)' 캠페인을 펼치는 중이다. 2004년에는 강남도서관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2005년에

20)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2005년부터 '원북원부산(One Book, One Busan) 운동'에 원북원부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사서들 및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토론도움자료 (discussion toolbox)를 만들어 공공도서관에 제공하고, 낭독회·사진전·음악회 등을 주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의 승인을 받아 전국 차원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아우르는 안내도메인(<http://www.onebook.or.kr>)을 개설하였다. 나아가 연구자는 이러한 독서운동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도서관대회에 나가 발표를 하고, 청중과 함께 전국 차원에서 경험담을 함께 나누기도 하였다.

21) 서울문화재단 책읽는 서울 홈페이지(<http://sfac.or.kr/>) [Cited 2006. 5. 20].

는 서울 16개 지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책'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하였다. 서울문화재단이 한국도서관협회에 위탁으로 진행하여, 단순 일괄 지원보다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있는 사업에 선택·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²²⁾ 다만, 아쉬운 점은 도서관마다 다른 책이 선정되어 서울 전체를 아우르는 '한 책'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²³⁾

2004년도의 '강남도서관 한 책 읽기' 사례를 좀더 살펴본다. 도서선정은 자료선정위원회, 사서들, '질화로독서회'의 논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청소년과 성인을 주 대상으로 『나의 아름다운 정원』을 선정하였다. 서울문화재단의 지원과 도서관의 도서구입 및 기증으로 41부를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독서릴레이에 활용하였다. '한 책 읽기' 운동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책 읽는 서울' 포스터 부착, '한 책 읽기 및 토론회'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책갈피 제작 배포, 서울시청·강남도서관·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재, 플랜카드 제작 및 홍보, 도서관 이용자·문화교실 회원 대상 홍보 등을 추진하였다. '한 도서관 한 책' 프로그램으로 저자와 독자가 함께 하는 독서토론회, 독서수첩 증정, 저자사인회 등이 실시되어 호응을 받았다.²⁴⁾

서울의 경우, 문화예술단체의 기획력과 문화인구 저변확대 노력이 돋보인다. 특히, 유명 아나운서들이 소외된 지역이나 도서관을 방문하여 낭독회를 하고, 예술인들이 소규모 공연을

하고, 연예인들이 홍보에 나서는 등 눈에 띄고 즐거운 문화행사와 연계된 독서운동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4.5 원 주 : 원주민 모두가 한 권의 책으로 뭉치자

원주의 '한 책' 운동은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이 주도하고 있다. 지구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민단체인 '생명원주21'과 1995년에 창간되고 주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원주투데이'가 주최하고, 생명원주21실천협의회와 지역 도서관인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이 주관하며, 원주시와 원주교육청이 후원하고, 원주평생교육정보관 '들꽃독서회'가 홍보위원회를 결성하여 범시민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원주의 '한 책' 운동은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생명도시' 이미지로 바꾸고, 원주 시민모두가 책과 함께 문화의 싹을 틔우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단체와 기업이 적극 추진하는 민간주도형운동으로 시작되었다. 2004년에는 지역 정체성확립에 도움을 주는 고(故) 장일순의 일화를 엮은 『좁쌀 한 알』을 선정해 학교와 직장·단체 중심으로 독서릴레이운동을 진행하고, 주민자치센터 및 아파트 단위에서 운동을 펼쳤다. 2005년에는 역사이야기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선정되어 나라사랑의 의미를 나누고 독도문제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도서선정은 시민 대상 설문조사와 각계 전

22) 서울문화재단, 2005.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 지원 계획,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어떻게 할 것인가?』(2005년 7월 7일, 서울특별시립정독도서관): 41.

23) 강남도서관 사서와의 전화인터뷰(2006. 5. 18).

24) 이윤옥, 2005. One Book One Library: 강남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어떻게 할 것인가?』(2005년 7월 7일, 서울특별시립정독도서관): 35-40.

문가의 추천을 거쳐 도서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시민들의 독서토론편모임을 통한 반응과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한 책'을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한 책' 프로그램으로는 독서감상문 쓰기, 작가와의 만남, 사랑의 책 릴레이 등이 진행되며, 홈페이지²⁵⁾를 오픈하여 이 운동을 소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독서토론 워크북은 토론 진행방법, 독서그룹 구성 및 평가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선정도서는 '도서기증운동'을 통하여 개인과 단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기증받아 도서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고 이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원주의 '한 책' 운동에서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점과 시민단체의 문화프로그램 기획력과 추진력이 주목된다. 또한 시청,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언론사, 문인협회, 도서관 독서회 등의 다양한 인사와 전문가가 고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선정위원회,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도시 전체의 독서문화운동을 꽃피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한 간사는 "원주의 '한 책' 운동은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편입니다.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평생교육정보관(도서관)이 함께 하고 있으며, 첫째(2004년도)에는 시민모금활동을 펼쳐 1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모았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시청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한 책' 운동에 별도예산으로 1천만원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떤 아파트는 전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말한다.²⁶⁾

4.6 익산: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익산의 '한 책' 운동은 익산시립도서관이 주도하고 있다. 농촌도시통합도시 익산에서 실행되고 있는 '한 책' 운동은 현재까지 순항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한 책'으로 『연어』를 선정하여 시립도서관과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도서를 배포한 후,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운영했다. 2005년에는 시민들로부터 약 4백 권의 책을 추천받아, 수차례 걸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시춘기 동화(성장소설)인 『너도 하늘말나리아』를 선정하였다.

이어 '한 책' 프로그램으로 작가초청강연회, 작가와의 대화 및 시민토론회, 도서교환행사, 독서퀴즈대회, 백일장대회, 책 속에 숨겨 있는 도서교환권 찾기, '한 권의 책' 선물하기 운동, 좋은 책 전시, 벽화 그리기, 문학관 기행 등을 개최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화캠프를 열고, 선정도서를 토대로 한 인형극·연극을 공연하기도 하였다.²⁷⁾

익산의 경우, 돋보이는 점은 예술단체와의 협력이다. 극단 「작은 소리와 동작」과 연계하여 연극놀이교실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도서관 등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꿈초롱 인형극단」과 연계하여 동화교실(인형극놀이)을 운영하였고, 여름동화캠프를 청소년야영장에서 운영하였다. 특히, '독서토

25) <http://www.bookone.or.kr/>

26) 생명원주21 실천협의회 간사 L과의 전화인터뷰(2006. 5. 17).

27) 익산시립도서관(<http://lib.iksan.go.kr/>) [Cited 2006. 5. 20].

론워크북'에서 독서토론의 모형과 진행방법 등을 구체적인 질문과 순서대로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다양한 문화리더들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문화행사의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이 독서운동에 간사 역할을 하며 참여해온 사서는 "익산의 경우 익산시립도서관이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에 힘입어 문화단체와 연대하여 다채로운 '한 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06년에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작년 예산의 절반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시청이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청과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각급 학교와 단체에 독

서토론워크북을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각도로 애쓰고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부터 바빠서 독서와 토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²⁸⁾ 익산시립도서관은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이라는 홈페이지²⁹⁾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선정도서와 문화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표 2에서는 최근까지의 서산, 순천, 부산, 서울(강남), 원주, 익산 6개 지역의 '한 책'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도서를 살펴보았다.

선정도서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참여하여 읽기 쉬운 도서가 선정되고 있다. 또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이슈와 특성을 반영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발행

(표 2) 국내 '한 책, 한 도시' 운동 사례 도시의 선정도서

(2006년 5월 현재)

지역	선정도서	작가	출판사	출판연도
서산	2003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사계절	2002
	2004 문제아	박기범	창비	1999
	2005 낙원? 천사?	윤홍길	민음사	2003
	2006 (준비중)	.	.	.
순천	2004 등대	임철우	문학과 지성사	2002
	2005 스무살 어머니	정채봉	샘터	2001
	2006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	안미란	창작과 비평사	2001
부산	2004 꿩이부리말 아이들	김중미	창비	2001
	2005 사람풍경	김형경	아침바다	2004
	2006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공지영	푸른 숲	2005
서울 (강남)	2004 나의 아름다운 정원	심윤경	한겨레신문사	2002
	2005 나비	안도현	리즈앤북	2004
	2006 (준비중)	.	.	.
원주	2004 좁쌀 한 알	최성현	도솔	2004
	2005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김병렬	사계절	2000
	2006 (준비중)	.	.	.
익산	2004 연어	안도현	문학동네	1998
	2005 너도 하늘말나리아	이금이	푸른책들	2002
	2006 (준비중)	.	.	.

28) 익산시립도서관 사서 K와의 전화인터뷰(2006.5.19)

29) http://lib.iksan.go.kr/design03/user/one_book/index.php

(표 3) 국내 '한 책, 한 도시' 운동 선정도서 발행연도 분포

(2006년 5월 현재)

출판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종수	1	1	1	3	4	1	3	1	15

연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한 책'으로 1998년에서 2005년까지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작품이 선정되고 있다. 이는 최근에 생산되어 세인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을 선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5. 국내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특징과 발전방안

5.1 특징

첫째, 국내 '한 책' 운동은 운영주체에 따라 그 규모와 성격에서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운영주체는 크게 공공도서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룬 주요 사례 도시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공공도서관이 이 운동의 운영주체가 되는 경우, 원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이러한 독서운동이 한시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독서인포

라를 이루는 공공도서관이 이 운동의 중심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책' 운동을 관찰한 결과, 도서관이 주체가 될 경우 현 단계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서양 선진국에 비해, 국내 공공도서관은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문화적 리더가 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한 책' 운동은 도서의 선정에서 토론도움자료의 제작, 작가 초청,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후원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수준의 기획력과 추진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 운동을 시도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한 책'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인력이나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1~2명의 사서가 중심이 되어 기존의 업무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경우는 관 주도이기 때문에 우선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도시 전역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순천의 경우는 시청에서 적극적

(표 4) 국내 '한 책, 한 도시' 운동 시행도시별 운영주체와 규모

(2006년 5월 현재)

사례 도시	주요 운영주체	2006년까지 진행여부	규모
서산	공공도서관	계속	도시전체
순천	지방자치단체	"	도시전체
부산	교육청	"	도시전체
서울	시민단체	"	구단위
원주	시민단체	"	도시전체
익산	공공도서관	"	도시전체

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 홍보 활동, 네트워크 형성 등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 아울러 '한 책' 운동뿐만 아니라 '북스타트' 운동,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 '기적의 도서관' 운영 등도 함께 추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의 경우는 교육청이 초창기부터 주도하고 2006년도부터는 공공도서관이 '한 책' 운동의 주체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학교와 공공도서관에서 이 운동이 관의 강력한 지도로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독서운동은 다양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참여가 필요하고 바람직하기 때문에, 관 주도의 '한 책' 운동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민단체가 '한 책' 운동의 주역으로 나서는 경우는 시민의 결집력과 문화적 기획력 부분에서 상당히 돋보이는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서울과 원주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민간단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유로운 활동이 '한 책' 운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의 특성상 지역사회와 정치적·문화적 이슈를 선명하게 반영할 수 있고 언론과의 연대도 비교적 손쉽게 이끌어내는 장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운영경비 확보를 위한 모금활동을 하고

지역주민, 관청, 언론을 상대하여 설득하고 홍보하는 활동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수동적으로 반응하면, 운영에 애로를 겪을 수도 있다.

둘째, '한 책' 운동의 핵심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토론'이 펼쳐지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탓에 국내 '한 책' 운동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³⁰⁾ 북미의 '한 책' 운동을 살펴보면 '한 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도발적이고(provocative) 적극적인(active) 토론이 가능한 책"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북미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한 책' 운동은 지역사회의 갈등과 의제에 대하여 독서를 통한 성찰과 토론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내 '한 책' 운동의 경우, 청소년이 볼 수 있는 환경과 성장의 아픔을 극복해나가는 이야기, 가족이나 공동체의 가치를 조명하는 소설, 인간내면의 심리고백 등 권선징악이나 계몽주의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교육적이고 계몽적인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30) 연구자의 경우, 부산에서 원북원부산운동을 추진하고 운영하면서 토론문화의 활성화가 쉽지 않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2005년의 경우, 『사람풍경』이라는 여행·심리 에세이가 '한 책'으로 선정되었다. 이 책은 주로 성인들이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으로, 국내 다른 도시들의 '한 책' 운동과는 달리 성인 사이의 본격적인 토론을 유발할 수 있는 책이었다. 연구자는 원북원부산운동 운영위원장으로서는 부산의 '한 책' 『사람풍경』을 부산 사람들이 읽고 토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서들과 독서치료 연구자들로 구성된 팀을 조직하여 토론도움자료를 만들어 공공도서관과 각 독서회에 제공하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독서텔레비와 온라인 토론도 권장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주로 여성들이 이 책에 대해 깊은 공감과 호응을 하며, 공공도서관이나 독서치료 관련 독서회 등을 통하여 토론을 펼치기도 하고, 많은 시민들이 작가와의 만남, 독후감대회 등을 통하여 관심과 반응을 보여주시는 하였다. 그러나 학교와 가정에까지 널리 확산되고 토론문화가 꽃피지는 못한 것 같다. 한편, 연구자가 재직하는 대학에서는 전교 차원에서 대학생들이 온라인·오프라인 독서 및 토론활동을 펼치고, 가을에 개최된 낭독회·사진전·음악 공연 등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하여 남녀노소가 읽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한 책' 운동에서 동화와 성장소설이 '한 책'으로 채택되는 것이 가족 또는 세대 사이의 대화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대상 도서가 선정되면 학교에서 교사들이 '한 책' 운동에 동참하기가 수월하여 이 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서산의 '한 책' 운동에서 코디네이터로 활동한 이권우는 다음과 같이 '한 책' 운동에서 '토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도시한책읽기운동의 성과로 반드시 꼽아야 하는 것은 바로 책읽기의 오랜 가치를 오늘에 되살려놓았다는 점이다. 함께 읽고 토론하는 가운데 신명을 경험하며 해석의 다양성을 접하게 된다. 서산시의 경우, 성인들의 토론회 조직에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청소년의 토론회 조직에는 교사들의 동참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책을 멀리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책읽기의 가치와 도서관의 존재이유를 확인시켰다는 것만으로도 한도시한책읽기운동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 (서산시)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회라는 것을 깨닫 확인했다. 더불어 한도시한책운동에 더 많은 시민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동주체들의 창의적인 기획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힘주어 말해놓는다. 토론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독서토론을 유도한다는 것은 지난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토론회를 노른자위라 하면, 다양한 형식의 문화

축제는 흰자위가 되어야 한다. 흥미를 돋우고 관심을 이끌만한 다양한 축제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는데 이르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³¹⁾

'한 책'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토론의 시작이며 사후 평가까지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한 책' 운동의 진정한 가치와 묘미라고 할 수 있다. '한 책' 운동에서 핵심인 토론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운영주체는 다각도의 기획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 책'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한 책' 운동에서는 문화프로그램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기존의 도서관의 문화행사 중의 일부로 진행되거나 별개의 행사로 진행되는 편이다. 물론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국내 공공도서관의 예산, 인력, 홍보, 기획력으로는 힘겨운 일이라고 점도 인정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행사가 9월 독서의 달과 10월 문화축제들과 중복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단기간(9~10월)에 주요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정도서 발표(5~6월경) 후에 각종 행사 및 독후감공모를 진행하여 가을에 독후활동 발표회 및 시상 형식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표 5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시하는 '한 책, 한 도시' 운동 추진일정의 모델안이다.

이를 참고하여 각 지역사회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간

31) 이권우, 2005, '한도시한책읽기운동'이 걸어온 길, 그리고 가야 할 길, 『One Book, One Busan 운동 전개 심포지움』(2005년 5월 23일, 부산 해운대 한화콘도 세미나실): 32-34.

(표 5) ‘한 책, 한 도시’ 운동 추진일정 모델안³²⁾

1~3월	4~6월	7~9월	10~12월
기획단계	대상도서선정	프로그램 실행	평가·사후 프로그램
추진위원회구성 사업기획서 작성 재정확보	대상도서선정 관련홍보작업 워크북작성	관련 프로그램 실행 작가강연회 및 토론회 연계된 문화프로그램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성과물 전시회 각종 시상

에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한 책’ 운동이 기존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에 접목되어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독서의 광장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운영주체는 현 단계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 계몽주의, 상업주의, 이벤트(행사)에 치우친 독서운동 등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한 독서운동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5.2 발전방안

첫째, 지역사회에서 독서문화의 일상화를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책’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독립적인 비영리기구(공익법인 형태)의 설립이 추진되고, 이러한 기구의 예산은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이러한 기구는 공공도서관을 중심거점으로 하여 참신한 기획으로 다채롭고 지속적인 문화프로그램을 펼치면서 한편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후원과 각급 학교, 시민단체(문화예술단

체 포함), 언론, 출판계 등의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연구자가 지난 수년 간 국내 주요 사례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책’ 운동의 다양한 국면과 운영주체별 장단점을 파악할 결과, 현 단계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이 운동을 주도적이고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공공도서관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이 운동의 주요 인프라로 기능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시민단체의 문화적 기획력과 여론조성 역량,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예산확보 및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공공도서관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한 책’ 운동 비영리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이 운동의 지속성과 건강성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본다.

물론, 이러한 비영리기구의 설립은 상당히 거시적인 방안이다. 독서운동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독립적인 비영리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북트러스트(Book Trust)’를 들 수 있다. 북트러스트는 영국의 전국 차원의 독립적인 교육분야 자선단체이다. 북트러스트의 목표는 “사람들이 독서를 발견하고 즐기도

32) 한국도서관협회·서산시립도서관, 2003,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서산시민 모두가 책 한 권을 함께 읽는다면』(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서산시립도서관): 54.

록 도와주는 것”이다.³³⁾ 이 단체는 여러 가지 독서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기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운동인 북스타트(Bookstart)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보건소, 대학의 협력을 받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민간기업의 후원도 받고 있다. 국내의 ‘한 책’ 운동을 위해 이러한 기구가 설립된다면, 전국적 차원과 각 지방자치단체(도시) 차원에서 이 운동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는 한국도서관협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부산의 범국민독서운동본부 등의 단체가 ‘한 책’ 운동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영국의 북트러스트와 같은 차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한 책’ 운동과 병행하여 우리나라의 각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도보권 안에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마을도서관)³⁴⁾을 건립하는 것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현재 ‘한 책’ 운동의 주요 사례도시인 순천과 부산에서는 각각 ‘작은 도서관’과 ‘쌈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작은 독서문화공간이 설립되고 이를 통하여 독서네트워크 및 독서터레이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곳이나 소외된 지역에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 도서관’을 짓고 주민들의 참여와 자원봉사를 바탕으로 도서관 네트워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작은 도서관’에 문화적 기획력과 추진력을 갖춘 사서가 근무하고 이러한 작은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도서관’은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병원, 시민단체 건물, 아파트 등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곳이나 밀집주거지역에 설립될 수 있다. 이러한 ‘작은 도서관’이 주민들의 일상적인 독서 공간으로 정착되고 나아가 서로 연결되고 향후 공공도서관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앞으로 ‘작은 도서관’은 ‘한 책’ 운동의 전초기지로서 기능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도서관 운동과 독서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책과 도서관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도서관과 독서의 가치에 대해 강조하거나 계몽적이고 상의하달 방식으로 홍보하는 형태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 책’ 운동은 “다시 책으로”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지만, 디지털매체의 활용을 포함하는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의 전개를 통하여, 개인의 독서체험이 책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오늘날 ‘IT강국’인 우리 사회에서 정보기술과 인터넷이 확산되고 있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러한 새로운 매체에 익숙해지고 영상문화를 즐기는 현상을 고려하여,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은 인터넷, 영화, 연극, 전시회 등

33) <http://www.booktrust.org.uk/> [Citrd 2006, 5, 29].

34) 현재, 노동도서관, 교양도서관, 주민도서관, 마을도서관, 민간도서관, 쌈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면 문고와 도서관을 구분하고 있을 뿐,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간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은 2004년도부터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기를 맞이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좀더 분명하게 정립하여 사회적·법적 합의 도출을 이룰 필요가 있다.

을 통하여 오감을 활용하는 문화운동으로서 신세대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결 론

'한 책'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토론문화를 유도했다는 점이다. '한 책' 운동을 통하여 독자는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론할 뿐만 아니라, 그 책 자체나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 작가 등에 연관된 영화, 연극, 전시회와 같은 여러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독서의 경험이 다양한 문화적 체험으로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오감을 자극하는 다른 매체로 표현된 원작을 접하게 되면, 어렵게만 느껴졌던 작품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맥루한(M. McLuhan)의 미디어 이론을 빌려 말하면, 문자 이전 시대에 인간이 오감을 통하여 외부의 정보를 인지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것과 문자 이후 시대와 인쇄시대에 인간이 시각 중심으로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문화운동인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책' 운동은 책의 복권(復權)을 노림과 동시에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이야기 문화를 꽃피우고자 하는 문화운동인 것이다.

서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한 책' 운동의 운영주체가 공공도서관이며, 이 운동이 단발적, 일회적 행사로 그치지 않고 주요

한 도서관에서 지속적인 행사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책' 운동에서는 도서관인이 주도적인 안내자가 되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책의 오아시스로 안내한다. 사서들은 자신들의 서지기술과 네트워크 조직능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정보와 지식의 바다에서 항해할 때 나침반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작가를 초청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펼치는 등 문화기획가로서 활동한다.

또한 도서관이 이 운동의 추진주체가 됨으로써 얻는 장점은 운동의 지속성이다. 최근까지 '한 책' 운동에 참여하는 도시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시가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책' 운동의 전체과정에 사서가 개입한다는 사실은 지식기반시대에서 사서가 도서관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도서관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 책' 운동은 사전기획에서부터 행사주관,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사서들이 맡음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³⁵⁾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수년 간 여러 도시에서 '한 책' 운동이 시도되고 진행되고 있다. 국내 '한 책' 운동의 운영주체가 이러한 독서운동을 추진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단계적 방안을 모색하여 이 운동의 본질적 취지인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도서관운동의 지평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연구는 국내 '한 책' 운동의 특징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에 적합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35) 이권우, 2003.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의미: '읽고 토론하기'의 힘에 대하여,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사업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2003년 9월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3.

보았다. 이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로는 좀더 미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독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연구, 토론도움자료를 제작하는 방법이

나 사례를 제시하는 연구, '한 책' 운동 관련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한 책' 운동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등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동철. 2005.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적 역할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2): 69-91.
- 김영기. 1999. 『공공도서관 장서를 통해본 한국 사회 지식의 흐름』. 서울: 한울.
- 김영석. 2004. 영국 북스타트 운동의 의의와 그 추진 현황.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291-313.
- 박미희. 2004.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서산시 시범사업 사례.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2004년 6월 4일.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도서관협회].
- 박상균. 2004. 『도서관학만 아는 사람은 도서관 학도 모른다』. 경기: 한국디지털도서관 포럼.
- 변우열. 2000. 독서의 생활화 방안. 『한국비블리아』, 11(1): 27-44.
- 새마을문고중앙회 편. 2001. 『새마을문고운동 40년사』. 서울: 새마을문고중앙회.
- 서울문화재단. 2005.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 지원 계획.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어떻게 할 것인가?』 2005년 7월 7일. [서울: 서울문화재단].
- 시스, 주디스. 2005. 『눈에 띄는 도서관 마케팅』. 이우정·박수희·김태훈 공역. 서울: 이채.
- 오동근 편. 2000. 『도서관인 박봉석의 생애와 사상』. 대구: 태일사.
- 윤정옥. 2004.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45-66.
- 윤정옥. 2005.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특성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7-43.
- 윤정옥. 2005.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동향과 의의. 『One Book, One Busan 운동 전개 심포지움』. 2005년 5월 23일. [부산: One Book One Busan 운동추진본부].
- 윌슨, 루시일. 2005. 『도서관경영자를 위한 인간경영의 성공기법』. 김포옥·최용관 공역. 서울: 아세아문화사.
- 이권우. 2003.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의미.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사업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2003년 9월 26일. [제주: 한국도서관협회·서산시립도서관].
- 이권우. 2005.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걸어 온 길, 그리고 가야 할 길. 『One Book, One Busan 운동 전개 심포지움』. 2005

- 년 5월 23일. [부산: One Book One Busan 운동추진본부].
- 이란주. 2002.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13(2): 183-195.
- 이수진. 2004. 『한국 북스타트 운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연옥. 2002.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이용재. 2005. 독서운동의 허와 실. 『출판저널』, 2005년 7월 1일: 10-11.
- 이용재. 2005. 부산북스타트운동의 전개양상과 발전 방안. 『한국민족문화』, 25: 429-460.
- 이용재. 2005. '한 책 한 부산(One Book One Busan)' 운동의 출범과 현재, 그리고 미래. 『One Book, One Busan 운동 전개 심포지움』. 2005년 5월 23일. [부산: One Book One Busan 운동추진본부].
- 이용재. 2005. '책 한 권, 하나의 순천' 효과적인 추진방안. 『책읽는 순천 심포지움』. 2005년 9월 27일. [순천: 순천문화예술회관 소극장].
- 이용훈, 심효정. 2002.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사회적 역할 수행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 13(2): 155-167.
- 이운옥. 2005. One Book One Library.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어떻게 할 것인가?』. 2005년 7월 7일. [서울: 서울문화재단].
- 한국도서관협회·서산시립도서관. 2003. 『한 도시 한 책 읽기운동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2003년 12월. [서울: 한국도서관협회·서산시립도서관].
- 황은주. 2006. 『한국의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운동 현황과 전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Booktrust, 1992. *Welcome to Bookstart*. London: Booktrust.
- Crawford, Walt and Gorman, Michael. 1995. *Future Libraries: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ALA.
- Kaser, David. 1966. Korean Micro-Libraries and Private Reading Rooms. *Library Journal*, 91(2): 6035-6038.
- Lee, Pongssoon and Um, Young-Ai. 1994. *Libraries and Librarianship in Korea*.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 Venturella, Karen M. 1998. *Poor People and Library Services*. Jefferson, North Carolina: McFarland & Company.

к с і